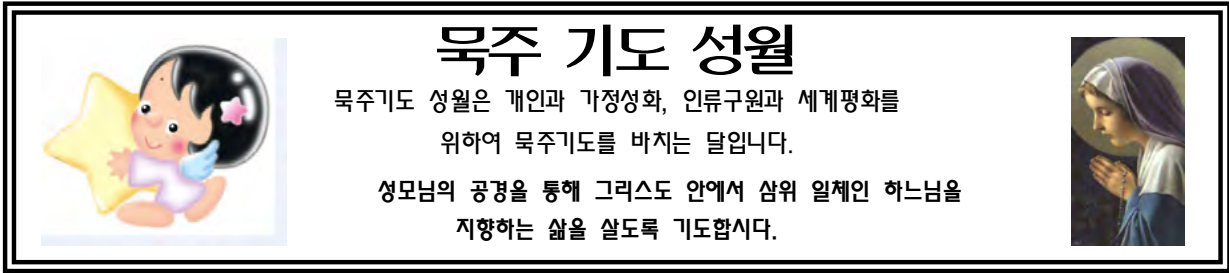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목주 기도 성월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성모님의 공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일체인 하느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10월 기도지향

- 현교정(돈보스코), 조경희(요안나 프란치스카) 가정
- 정석원(라파엘), 안혜진(임마콜라따) 가정

목주 기도 성월

전 세계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목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주 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시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정하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위하여 목주 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10월 구역미사 안내

- 새로 부임하신 주임신부님과 공동체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구역 : 10/12(금) 오후 7시, 김창만(그레고리오) 형제 가정, 1006 Melrose St. Overland Park, KS 66214
 - * 2,3구역 : 10/19(금) 오후 7시, 이우영(가브리엘) 형제 가정, 14304 Outlook St. Overland Park, KS 66223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10/13(토) 오전 11시
- 장소 : 맨하턴 성 토마스 모어 성당

창세기 그룹공부

성경 통독 모임을 마치고 새롭게 성경 그룹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창세기 그룹 공부’는 첫 과정으로써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6-7명의 그룹원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나누며 삶으로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일시 : 목요일 오전반/오후반
- 신청 및 문의 : 주임 신부님 jooyk88@gmail.com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추석 합동위령미사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5구역, 구역미사에 함께 한 모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2	212	156, 155	27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고영방(스테파노)	이우영(가브리엘)
	고평원(프란치스코)	이원준(요 한)
다음주일	홍순익(마르띠노)	차호섭(요 셉)
	김준영(요 셉)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김태중(예레미야)
	김주연(세실리아)	김시연(엘리사벳)
다음주일	박혜정(가타리나)	문석찬(요 셉)
	김명은(안젤라)	백문주(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문문주(엘리사벳), 최은미(아네스), 배복선(한나)
다음주일	김명은(안젤라), 조경희(요안나), 박희영(카타리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9월 30일>
- 미사참례 : 105명
 - 주일헌금 : \$441
 - 교 무 금 : \$166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의 신성함에 대하여 말씀 하십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인연이며 하느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누구나 부부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행복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성화해설

요당리 수원교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소재.

요당리는 1801년 신유박해를 기점으로 서울과 충청도 내포지역의 신자들이 피난하면서 형성된 교우촌(양간공소)으로 추정된다. 바다와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충청도와 경기도 내륙, 서울을 잇는 선교길의 교부도 역할을 했던 신앙의 요람지였다. 장주기 성인과 하느님의 종 장 토마스의 출생지이자 신앙의 터전이었고, 교회 재정확보를 위한 전담이 운영되었던 곳으로 그 책임을 맡았던 민구가 성인과 공소 회장을 역임한 정화경 성인이 활동했던 곳이다.

주홍식 파드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창세 2,18-24 <한 몸이 된다.>

화 답 송 :



주 님 께 서 우리 에 게 한 평 생 모든 날 에 복 을 내 리 시 도 다

○ 복되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도를 닦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

○ 너의 집 안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나무인 듯 너의 상 들레에는 네 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

○ 옳거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어 한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

제 2 독서 : 히브 2,9-11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 음 : 마르 10,2-16<또는 10,2-12>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말씀의 이삭

“부부의 사랑 보다 큰 하느님의 사랑”



오늘 복음은, 모세가 허락한 대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으냐는 바리사이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모세가 남성들에게 준 특권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기에 그 사실을 감안해 모세가 그 법을 제정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역사는 강자가 약자를 학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인류역사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현대에도 여성을 학대하는 문화권은 아직 있습니다. 유엔이 발간한 세계 인권 현황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특히 중동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많은 여성이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네 명까지의 아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남편의 뜻을 거역한 여성은 잔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바리사이가 거론하는 것은 신명기(24,1)가 전하는 법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눈 밖에 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법입니다. 철저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회이고 시대였습니다. 여성이 남편의 눈 밖에 나면, 그 여성은 학대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성을 남편의 학대에서 구출하기 위해, 아내를 집에서 내어보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남성들은 그 법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해석하였지만, 실제로 그 법은 그 시대 남성의 학대에서 여성을 해방시켜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설화를 인용하면서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게 하여 약자인 여성을 구해내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하느님이 살아계셔야 한다고 가르

치십니다.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두 사람 사이에 살려내어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은 서로의 존재를 은혜롭게 생각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짝지어주셨기에’ 하느님이 두 사람 사이에 살아 계시게 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이 두 사람 사이에 살아있으면,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비롭고 선하신 하느님은 인간을 짝지어 주고, 함께 있어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완고하여 미워하고, 서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결혼했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이혼했거나 모두에게 하느님은 사랑을 사랑하고 살리는 분,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자비하신 하느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일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이혼한 사람,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를 맞아 행복하게 살겠다는 사람에게도 자비하신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안에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살아있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마중물

사형수 동생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정에서 사형인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이 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명사요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죄를 짓고 사형장으로 나가게 된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체면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대통령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동생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형의 나라를 위한 공훈을 생각해 사면을 허락했습니다. 형은 사면장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에게 그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면을 당해서 자유를 얻는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내게 사형 인도를 한 판사를 먼저 죽일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 해준 증인들도 모조리 죽여 버릴 거야.” 형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감옥을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이 있고, 둘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셋째는 자기의 죄를 알지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천사도 가지고 왔던 하느님의 축복을 당신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교부들의 신앙

락탄시우스

2. 저서

1) [하느님의 작품] 이 저서에서 락탄시우스는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에 의해 창조된 인간안에 내재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예찬하고 있다. 이성과 감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 위대하며, 그것들을 길들이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걸작품인 인간의 위대함을 해부학과 생리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입증하고 설명한다. 이 저서는 신학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순수 철학 이성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예찬한 글이다.

2) [하느님의 분노] 일부 희랍 철학자들은 하느님을 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한 분으로서 인간에게 아무런 분노나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락탄시우스는 인간을 사랑하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의를 거부하며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선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악에 대한 저항은 결국 같은 것임을 강조한다. 인간의 죄악에 분노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종교심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인간의 품위를 높여 준다고 역설한다.